



2025여름 소확행아트컬렉션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2025여름 소확행 아트컬렉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탄탄한 작가군으로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BC카드(대표이사 최원석)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BC카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을지로의 을지트윈타워 동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업무와 일상으로 분주한 빌딩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은 많은 방문객과 임직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특별한 즐거움을 안겼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은 투자로 현장에서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친근한 환경을 조성했다.

'소확행 아트컬렉션'은 이름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예술 속에서 발견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전시로,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애호가 및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BC카드 임직원들에게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에는 약 15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동양화, 서양화, 디지털 프린팅, 공예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전시공간을 다채롭게 채웠다. 소품 중심의 구성 덕분에 부담 없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각자



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 일상 공간에 예술을 들이는 즐거움을 경험한 관람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

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기회를 통해 동문 작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더 많은 이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아카데미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본회 S-아카데미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에 걸쳐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백악미술관 2층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을학기는 ▲프리페인팅-유화아크릴화(강사 조명식), ▲기초 소묘드로잉-인체를 이용한 기초드로잉(강사 김호준), ▲태블릿PC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사군자-여백과묵향의힐링(강사 변영혜) ▲수채화-초중·고급(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풍경·인물·정물·문인화창작(강사 조래원) ▲유화-초·중·고급(강사 안성규) ▲민화-민화그리기와 독화법 탐구(강사 류인선) ▲사진완성 클래스-이론&실전 마스터(강사 이필두) ▲자유크로키-누드(강사없음)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석회벽화·템페라(강사 선우향) 등 모두 11개 강좌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개인의 실력에 맞춘 실기와 이론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도록 구성됐다. 오랜 시간 실전 경험과 교육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지도한다. 접수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5일로 문자 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강사진 및 아카데미에 관한 정보는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청소년미술대전 동창회장상 시상

본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아주개홀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자인 예원학교 2학년 김민채 학생에게 수여했다.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이사장 장부남)가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본회가 후원하는 미술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총 1,350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입상자는 358명이다. 심사는 입시생(예비전공)과 일반학생을 나누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전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B에서 개최됐다.

회장동정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내정

본회 권영결(69응미) 회장이 오는 9월 초 개원할 세종연구원(세종인재평생교육·도시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내정 되어 2028년까지 3년 임기를 수행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권영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회장의 경영 능력과 전문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란 의미와 함께 권회장의 지나온 이력과 경험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권회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권회장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 완성, 국가균형발전 역사적 대업 헌신 ▲세계 도시들이 닦고 싶어하는 신세기적 모델 도시 안착 ▲21세기형 과학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모범도시로 육성 ▲교육지식융합도시로 성장,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창의적 인재와 깊이 내재된 문화 예술도시 안착,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모두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실행안으로는 높은 녹지 비율을 강점 삼아 도시 경쟁력 및 생태 정책 강화,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식 융합도시로 전환, 다차원 문화예술 도시 전략 추진, 인재 교육 과정 체계화, 중장년층 디지털 문해력 향상으로 세대 소통 강화, 전 생애주기 교육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김현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적합판정의 청문보고서를 건네 받고 있는 권회장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권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UCLA 건축디자인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계획학 박사 학위 등을 이수했다. 모교 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와 계원예술대 총장,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이화여대 미술대학 장식미술학과 학과장, 서울대미술관 관장,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 (주)한샘 사장, 동서대 석좌 교수, (재)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예술고 교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2024년도 사업내역

사무소 운영현황



서울대오피스(동창회)
서울대학교 50동311
010-5235-1946



선릉오피스(법인)
역삼동아남타워1323
010-8605-8065



인사동오피스(아카데미)
인사동백악미술관2층
010-8579-7654

운영관리

▶정기감사 실시

[6월] 본회 및 본회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에 대한 2023년도 사업회계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정기감사 실시



▶정기총회 개최

[6월 18일] 강원도 봉평 허브나라농원에서 본회 및 본회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3년도 사업회계 및 24년도 사업계획 인준

홍보

▶E-NEWS 발간

본회 홍보 및 소통을 위해 연 12회 매월 15일 '서울미대동창회 E-NEWS' 발간, 3500여명 동문 및 관련인에게 메일로 발송

▶SNS계정 운영

본회 및 회원 소식 전달을 위해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채널 운영

행사 및 사업



▶미술여행 [2월 27-28일] 1박2일로 눈·크루즈·온천-겨울충주여행 실시

▶MOU 체결 [2월] 백악미술관, 갤러리 PaL과 MOU 체결

▶미술아카데미 개설 [3월] S-미술아카데미 설립후 백악미술관 2층에 실기실 마련, 15주코스 봄가을학기, 8주코스 여름겨울특강 미술실기강좌 진행

▶청소년미술대전 회장상 시상 [7월]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 시상

▶서울대총동창회캘린더 수록작품 선정

[9월] 2025년도 서울대총동창회 탁상용캘린더 수록 작품 선정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운영

홈페이지 개편 및 회원 자료 아카이브 수정보완

▶온라인몰 운영 S-ART MALL 및 Mall SNUA 운영

전시 사업



▶이시동시 개최

[3월 26일-4월 6일] 갤러리PaL에서 미술여행 연계전시 개최

▶S-아트페스타

[4월 2-8일] 한전갤러리에서 SNU 아트페어, 숨은예술가들, 베리타스 미술상전 등 3개전시 동시개최

▶세렌디피전 개최

[4월 24-29일] 신진작가 기획초대전 갤러리B에서 개최

▶소확행아트컬렉션 개최

[5월 2-8일] 장애청소년 후원금마련 판매전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SNU분당병원전 힐링인아트 개최

[4월/8월] 환우들을 위한 전시로 공모를 통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갤러리 SPACE-U에서 개최

▶S-ART BOOT SHOW 개최

[5월 22-28일] 본회 후원 동문들을 위한 부스개인전을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개최



▶그림속화원전 개최

[7월 5-25일] 허브나라 MT와 연계 전시로 아트스페이스 쉼리아에서 개최

▶가을 소확행아트컬렉션 개최

[10월 10-16일]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

▶일상속의 예술-디자인&크래프트전 개최 [11월 30일-12월 6일] 디자인 및 공예분야 전시로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가을 S-ART BOOT SHOW 개최

[11월 30일-12월 6일] 본회 후원 동문들을 위한 부스개인전을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개최

모교지원

▶새터행사지원 [2월] 24년도 신입생을 위한 새내기배움터 행사에 경품지원



▶장학금 수여

[2월/8월] 연 2회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과(5개과)의 회장, 부회장에게 각 1백만원 지급

▶스케치여행 간식지원

[4월 27-29일] 각 과별 스케치여행시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으로 호두과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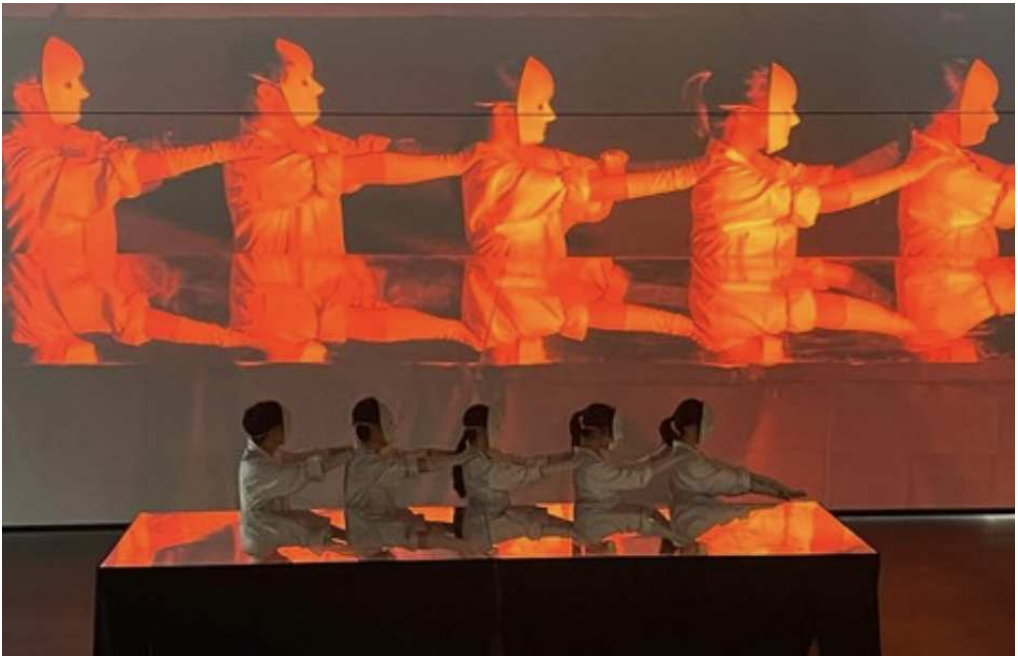
▶야식지원사업

[5월/11월] 연 2회 본회 서울대오피스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에게 야식지원. 연인원 1000여명에게 컵라면, 군계란, 에너지바 등 간식 4000여개 제공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12월] 모교 졸업작품 우수자 전공별로 8인을 선정해 베리타스미술상(동창회장상) 시상. 상장과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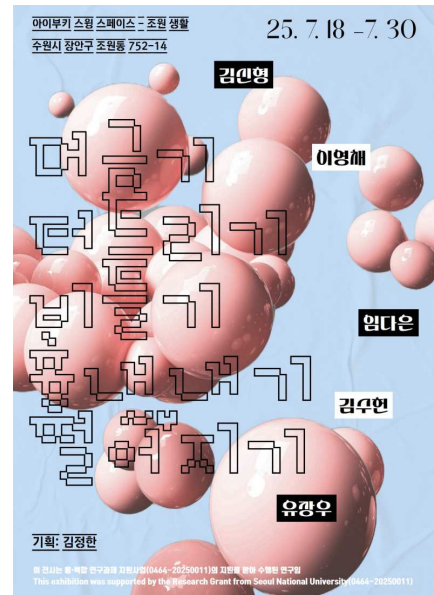
모교소식



디자인학부 이장섭교수, ‘신체조형’ 발표회

모교 디자인학부 이장섭(97디자인) 교수가 진행하는 학부대학 ‘베리타스 실천’ 교양과정 중 하나인 ‘신체조형’ 수업의 결과 발표회가 지난 6월 10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교수의 ‘신체조형’은 올해 출범한 학부대학이 교양 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수업이다. 예술을 매개로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이 수업은 공간과 오브제, 움직임 활용해 사고의 틀을 흔들고, 타인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움의 방식을 제안한다. 지도교수인 이교수는 “향후 이 수업이 과학, 철학, 건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협력하여 신체성과 예술성을 매개로 하는 융합형 교육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무대 기술과 제작 장비의 전문성을 도입해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이 더욱 실험적이고 정교한 무대 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경쟁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수업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기 감각의 회복”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꼽았다. 그는 “몸을 다루는 작업은 정서적 안정과 감각적 사고를 확장시키며, 이 후 공동 창작 과정은 서로의 감각을 연결해 갈등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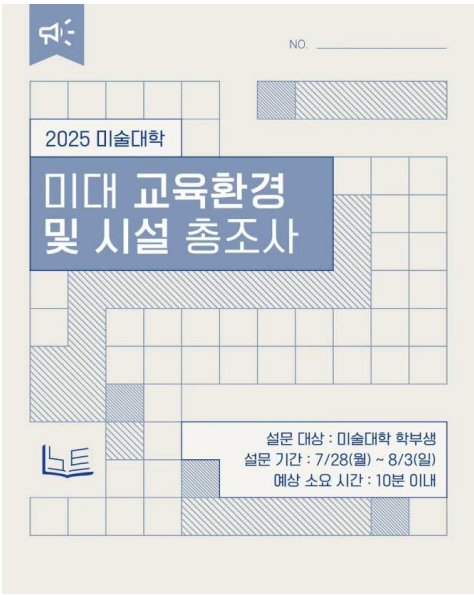
서양화과 김정한교수 기획전시



아닌, 감각과 운동성이 의미로 환원되기 전의 비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킨다. 작가들은 몸 안에서 울리는 리듬,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진동, 인식되기 전의 감각 흐름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전시는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 속의 불확실성, 구조보다 균열, 명확한 메시지보다는 감각의 미끄러짐을 중심에 둔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흔들리는 몸짓 속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파편과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망을 마주하게 된다.

모교 교육환경 및 시설 총조사

모교 학생회(회장 조민경/23디자인) [노트]와 모교 행정실이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모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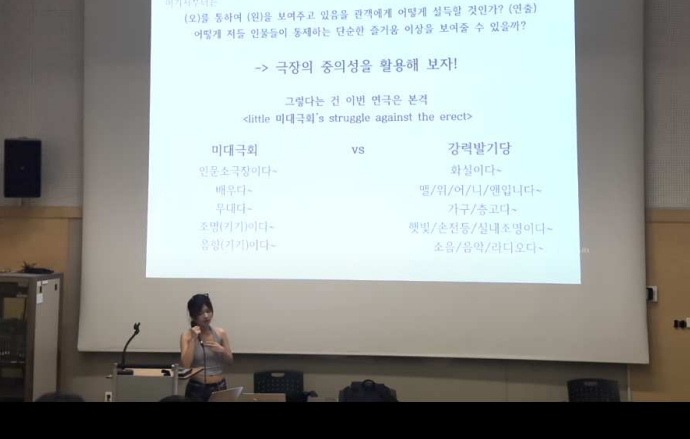
교 학생회가 주도한 회칙 전부개정, 과별 교류 행사, 업체 제휴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학생 자치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학생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실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미술대학의 특수한 교육 환경과 시설 사용 특성상, 세부적인 불편사항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학생 주도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설문은 약 10분 이내로

학생회 상반기 활동보고



한 성과는 학생회칙의 전부개정이다. 학생회의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미술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신입생 환영을 위한 활동도 활발했다. 인문대,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과 함께 ‘인생음미’ 연합 새내기배움터를 기획·진행해 새내기들의 교류를 이끌었다. 또한 학생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밝은눈안과, YBM, 스쿨밋 등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제공했으며, 사로수길 지역과의 제휴도 체결해 미술대학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 이외에도 과제전 포스터 제작과 홍보, 학생회 소통함 개설, 중간·기말고사 간식사업, 중고장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집중했다. 또한 4월 만우절에는 소소한 이벤트를 마련했고, 2025 미대인의 밤을 최초로 기획·진행하며 과별 교류와 미술대학 전체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연합한 일일호프 개최로 외부와의 연계 확대를 보여준다. 상반기 동안 정책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활동을 통해 모교 구성원과의 유의미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힘쓴 [노트]는 하반기에도 어떤 새로운 시도와 개선이 이어질지 기대 되고 있다.

미대극회 118회 정기공연 준비



의 희곡 ‘리를 멜컴’으로 김나연(23동양) 학생이 연출과 각색을 맡았다. 극예술연구회는 지난 7월 20일 모교 49동에서 김나연 학생이 진행한 ‘연출 브리핑’을 통해 회원들에게 연출 의도를 공유했으며, 총 56명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약 세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모교 학생회 [노트]가 2025년도 상반기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활동 보고에서는 학생 자치의 근간을 정비하는 제도적 개편부터 실질적 교류를 위한 행사까지 다양한 활동이 담겼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학생회칙의 전부개정이다. 학생회의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미술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신입생 환영을 위한 활동도 활발했다. 인문대,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과 함께 ‘인생음미’ 연합 새내기배움터를 기획·진행해 새내기들의 교류를 이끌었다. 또한 학생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밝은눈안과, YBM, 스쿨밋 등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제공했으며, 사로수길 지역과의 제휴도 체결해 미술대학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 이외에도 과제전 포스터 제작과 홍보, 학생회 소통함 개설, 중간·기말고사 간식사업, 중고장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집중했다. 또한 4월 만우절에는 소소한 이벤트를 마련했고, 2025 미대인의 밤을 최초로 기획·진행하며 과별 교류와 미술대학 전체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연합한 일일호프 개최로 외부와의 연계 확대를 보여준다. 상반기 동안 정책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활동을 통해 모교 구성원과의 유의미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힘쓴 [노트]는 하반기에도 어떤 새로운 시도와 개선이 이어질지 기대 되고 있다.

모교 공식 동아리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문소극장에서 상연될 118회 정기공연을 준비를 하고있다. 이번 정기공연 작품은 데이비드 홀리웰

서울대소식



유홍림총장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대 총장 접견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지난 7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대(King Saud University)의 압둘라 알 살만(Abdullah Al-Salman) 총장을 접견했다. 알 살만 총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전략지역 유력인사 방한 초청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사우디 내 한국학 분야 교육 및 연구 발전을 협의하고, 주요 미래 산업에서 양국 간 인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킹사우드대는 이번 총장 면담을 통해 양교 간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서울대를 방문했다. 킹사우드대는 1957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대학교이자 왕실이 직접 관할하는 왕립대학으로, 국가 주요 인재와 유력 인사를 다수 배출해온 사우디 최우수 대학이다. 알 살만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학생 교환, 교원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새로운 교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서울대와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공학과 의학 등 킹사우드대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연구 협력이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킹사우드대에 새로 설립된 예술대학을 소개하며,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대 음악대학 및 미술대학과의 문화 예술 분야 교류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유 총장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킹사우드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교 간 교류를 구체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계 글로벌 SNU공헌단 발대식

유홍림 총장은 지난 7월 9일 '2025 하계 글로벌 SNU공헌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나눔의 여정이 공식적인 막을 올리는 자리로, SNU공헌단 단원 및 지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격려사, 지도교수 위촉, 사업 활동 소개, 단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SNU공헌단'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학생봉사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견 활동은 연중 2회 진행되며 학생봉사단은 국가별로 교육나눔, 의료·보건나눔, 적정기술 설계, 문화교류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현지 대학 학생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실행한다. 현지와의 다각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학내 전문적 지식 자원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현지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 총장은 축사를 통해 "먼 길을 떠나는 여러분의 결심과 용기에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배려와 협력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이 지난 7월 7일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센터 개소는 2023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시흥시가 협업체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병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참여 내빈의 축사에 이어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비전 영상과 센터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과의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개소 기념 세리머니, 실습장 투어가 진행됐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한국형 보스턴클러스터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산학연·병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과 실습, 연구를 통해 현장형 바이오 전문 인재를 길러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보스턴을 넘어서는 혁신과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U사이닝보드 5기 임명장 수여식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 행정관(60동) 4층 소회의실에서 SNU 사이닝보드 5기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SNU 사이닝보드는 학내의 조직 문화 개선과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실무직원 중심의 조직으로, 근속기간 10년 이하의 다양한 직급 및 직렬의 직원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5기 위원들의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홍림 총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기획부총장, 박인권 대학혁신센터장, 오주환 데이터통합관리부장, 정봉문 사무국장 등 교내 주요 인사와 함께 16명의 5기 SNU 사이닝보드 위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5기 운영계획 발표, 유홍림 총장의 인사말씀, 임명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SNU 사이닝보드는, THE Awards Asia 2022에서 서울대학교가 '올해의 직장'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SNU 사이닝보드는 학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교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문화예술원 25 하반기 STUDENT UP 공모

25-하반기
학생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STUDENT UP
모집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문화 공간인 파워플랜트(PowerPlant)에서 새로운 문화 창작에 도전할 학생들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대학교 68동에 위치한 파워플랜트는 40년간 학교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던 시설이었으나, 이제는 교내에 문화를 공급하는 공간이 되었다. 한때는 산업 시설이었던 파워플랜트의 높은 층고와 넓은 회색빛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창작과 실험을 수용하고 있으며, 공간을 사용하는 창작자들에 의해 매번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STUDENT UP은 학생들이 그동안 머리 속으로만 그려왔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전시, 공연, 영화, 연극, 세미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요리, 여행, 게임, 스포츠 등)의 지원을 환영하며, 프로젝트의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STUDENT UP은 학생들이 그동안 머리 속으로만 그려왔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전시, 공연, 영화, 연극, 세미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요리, 여행, 게임, 스포츠 등)의 지원을 환영하며, 프로젝트의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총동창회소식



제21회 동문 바둑축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주최하는 제21회 동문 바둑축제가 지난 7월 6일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에서 열렸다. 올해 동문 바둑대회에는 12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참가했다. 단체전에는 6개 팀, 30명이 출전해 호흡을 맞췄고, 개인전에는 90명이 참가해 진검 승부가 이어졌다. 이날 인사말은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을 대신해 김인규(69정치)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김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바둑을 매개로 세대와 단과대를 아우르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감동”이라며, 승패를 넘어 교류와 우정이 싹트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판으로는 모교 출신 프로기사인 오주성(07물리천문) 2단과 송혜령(21대학원) 3단, 모교 바둑부 지도 사범인 이서영 1단이 참여해 경기의 공정성을 책임졌다. 개인전 최강조 우승은 정용래(21대학원) 동문이 차지했다. 오후 대국에는 바둑계의 전설 이세돌 9단이 특별 방문해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김종섭 회장이 협찬한 전자피아노는 손영환(99전기) 동문에게,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이 협찬한 갤럭시탭은 지종현(25사회) 학생에게 전달됐다. 본회는 참석 동문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미주동창회 주최 제34차 평의원회의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주최한 제 34차 평의원회의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시행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더하며, 동문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회의에는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장과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주요 인사들과 샤생크 프리야 미네소타대 부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창원(53화학)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재욱(93전기) 국제협력본부장, 신학철(75기계) LG화학 부회장 등 연사들이 나서 당시 프로젝트의 구체적 경과와 현재적 의미를 되짚으며, 후배 세대에게 서울대인의 책무와 비전을 강조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주동창회는 해외 동창회 중 가장 전통 깊은 조직으로, 동문들의 활약이야말로 서울대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총동창회도 함께 호흡하며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호동문 총 2억6800만원 기부

김동호(62불문) 동문이 지난 6월 총동창회에 3100만원을 기부했다. 김동문은 현재까지 총 2억6800만원을 기부한 장기 기부자로, 이번에도 인문학 분야와 후학 지원을 위해 뜻을 이어갔다. 이번 6월 기부에는 총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수요특강 ‘트럼프, AI, 반도체와 국제규범의 리셋’



총동창회는 지난 7월 2일 SNU장학빌딩에서 ‘트럼프, AI, 반도체와 국제규범의 리셋’을 주제로 수요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수요특강은 이재민(87법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이원장은 국제 질서의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 중심 통상, 디지털 규범 경쟁 등 변화 속에서 한국은 규범 기반의 전략과 법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9월 조찬포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25년 9월 조찬포럼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
1975-2025



오세정 前서울대학교 총장
**중국의 시골기
현장 탐방기**

일시 2025. 9. 4. (목)
07:30am ~ 09:00am

장소 더플라자호텔 (서울시청 앞)
11층 그랜드볼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포럼 안내】
- 일 시 : 9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前외교통상부 장관
 - 주 제 : 2024년 미국대선 - 전후 국제질서의 변곡점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9월조찬)
* 식사 예약으로 9월 6일(금) 이후 신청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 02-702-2233

9월 국토문화기행

- 일시 : 9월 25일(목) 오전 9시(정시출발)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답사지 : 윤증고택(논산)
 - 참가비 : 5만원
- 【신청 방법】
- 참가신청[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1599-7704(전화불가) 팩스/02-703-0755 이메일/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9월국토)
- ※ 9월 17일(수) 이후 신청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담당자 02-879-8204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025.7.16 이후)은 다음 호(9월)에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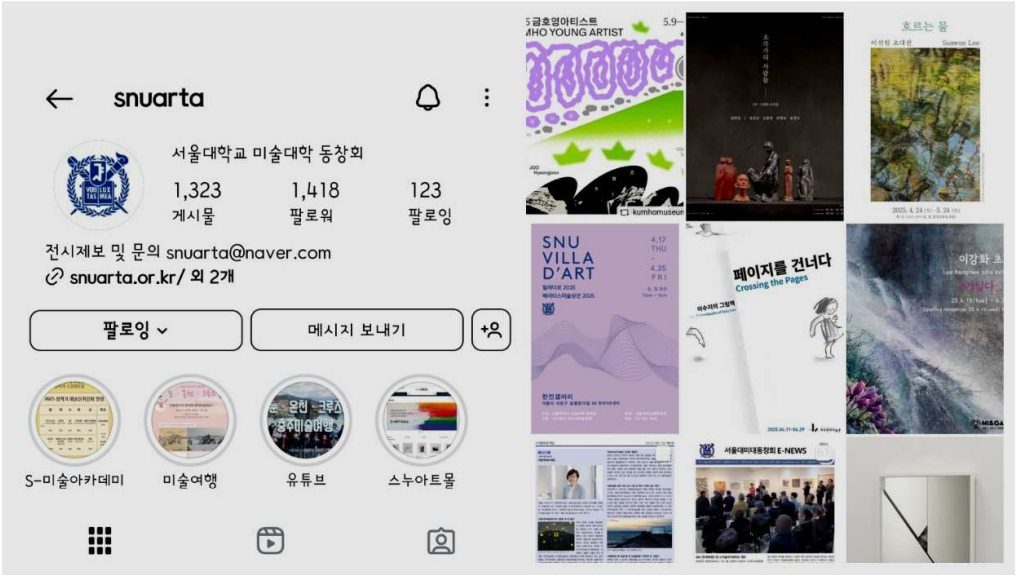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 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2025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원데이
오전 10 - 13시	기초소묘드로잉 인체를 이용한 기초 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프레스코 Fresco·Secco (석회벽화·템페라) 선우향
오후 14 - 17시	민화 민화그리기와 독화법 탐구 류인선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사진 완성 클래스 이론&실전 마스터 이필두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9월 13일 (토) 10-17시 (점심휴식 1시간)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8월 7일(목) - 8월 25일(월)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9.8(월)~12.15(월) 15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45만원(15주 기준)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15만원(재료비 포함)
*자유크로키 24만원(12주 기준) 모델료 별도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동문탐방

박소영(94디자인) CCI CEO & Co-Fou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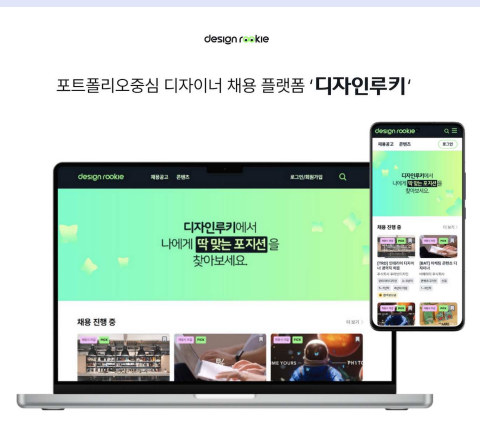


CCI를 시작하게 된 계기

현재 디자인 직무 전문 헤드헌터로 16년째 일하고 있다. 모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처음에는 한샘에 입사해 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에서 1년간 실무를 경험했다. 이후 공모전 기획과 트렌드 리서치 등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맡았고, 이노디자인의 기획·홍보·마케팅 팀에서 약 7년간 일했다. 디자인 전공자임에도 직접 디자인을 하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으면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직을 고민하던 중, 영국 세인트 마틴에서 디자인 스터디스(Design Studies) 석사 과정을 밟았다. 디자인 씽킹 기반의 수업에서 'Who am I'를 주제로 졸업전을 준비하며, 한국 디자이너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매거진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자신의 역할을 '코디네이터'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외적인 일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석사 졸업 후 둘째 출산으로 잠시 경력 공백이 있었지만, 일본계 헤드헌터였던 지인의 조언을 계기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헤드헌팅 또한 '코디네이터'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디자이너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일이 결국 디자인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헤드헌터로 커리어케어에서 7년간 근무한 뒤, 고객사의 인사책임자였던 홍경아 대표와 함께 지금의 CCI를 9년 전 창업했다.

CCI의 주요 활동과 서비스 소개



CCI는 디자인 인재 중심의 사업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세 가지 사업부문으로 운영된다. 디자인 리더급 이상의 인재를 기업과 매칭하는 헤드헌팅,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정부 용역사업, 온라인 주니어 채용 플랫폼 디자인루키를 운영하고 있다. 헤드헌팅은 주로 대기업 시니어 채용

중심이라, 주니어 디자이너 시장이 전혀 커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느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인턴·신입·주니어 디자이너를 위한 채용 플랫폼 '디자인루키'를 런칭했다. 그래서 지금 헤드헌팅은 주로 리더급 이상의 인재를, 디자인루키는 주니어 디자이너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디자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해 디자인 인턴 모집을 디자인루키에서 진행하며, 정부사업과 플랫폼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 에이전트 서비스도 기획 중으로, 기존의 저가 프리랜서 시장과 차별화를 두어, 탑 프리랜서 30~40명의 정예 멤버로 구성해 기업의 디자인 리더가 없거나 핵심 제품 개발 인력이 필요한 포지션에 전문가를 매칭할 계획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과 의미있는 프로젝트

헤드헌팅 기업 퇴사 직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버티컬 헤드헌팅'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까 하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헤드헌팅은 생산·재무·인사·마케팅 등 다양한 포지션을 모두 찾아주는데, CCI는 오직 디자이너만 추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리스크가 큰 방식이었지만,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디자인 포지션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KIDP 글로벌 디자인 인턴십 사업이다. 2020년부터 현재 6회째 운영 중인데, 우리가 기획부터 참여했고 이제는 확고한 글로벌 인턴채용 브랜드가 되어 한국 디자인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사업이지만 회사의 성장을 견인한, 애착이 큰 사업이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비전

많은 스타트업이 돈을 벌고 엑시트(exit)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르다. CCI와 디자인루키가 '크리에이티브 인재라면 떠오르는 이름'이 되는 것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쿠팡처럼 대중적 플랫폼이 되기보다는 마켓컬리처럼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10년 차에 접어든 지금,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좋은 사람들과 오래 일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커리어 여정을 돌아보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

석사 과정을 마쳤지만, 학력만 달라졌을 뿐 경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출산 후 취업이 잘되지 않아 우울증이 오기도 했고, 미술치료를 1년간 배우며 여러 진로를 고민했다. 결국 직업 선택 기준표를 만들어 급여, 아이와의 시간, 만족감 등 6~7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헤드헌터가 1순위로 나왔고, 헤드헌터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한 3개월 만에 이 일이 잘 맞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경험은 "도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라면 직업은 여러 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큰 전환점이었다.

동창회와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나 기대하는 역할

순수미술 전공자가 많은 동문회에서, 현업 디자이너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특히 취업 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산업과 직무가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커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 학년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후배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I가 발전한 지금일수록 크리에이티브한 인재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자이너는 본질적으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호기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AI가 기술적 스킬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창의성은 대체할 수 없다. 디자이너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동시에 테크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함께 키운다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인스티튜트(CCI) | 디자인루키(designrookie)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 53, TM빌딩 4F

T. 02-515-3095

H. creativecareer.kr / designrookie.kr

'디스코스 온 아트' 개관 정영목(교원)

정영목 모교 명예교수가 왕십리로 4길에 신생 전시공간 '디스코스 온 아트'를 개관했다. 이 공간은 정교수가 '예술이란 곧 담론'이라 선언하며 연 전시 플랫폼으로 지난 5월 'EXPRESSIVE FIGURED: 표현의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첫 전시를 열었고,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윤해남 동문의 개인전 'EXPRESSIVE NATURE: 섬 Island'를 연다. '표현의 궤적'에 대해 정교수는 "사실과 재현의 외연을 공들여 묘사하는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쪽으로 현

대미술이 진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으며 윤동문의 작품에 대해 "윤해남의 회화는 자유와 관련한 작가의 성정(性情)과, 참아도 될 법한 억압의 피곤한 일상이 뒤섞인 결과다. 표현의 강도에 따라 '신비'와 '무게'를 품고, 일상의 자연을 넘어 감각의 우주를 만든다."고 했다. 정교수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미술사학 학사와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숙명여대 회화과 조교수를 거쳐 모교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춘천시와 작품기증 협약 김차섭(59회화/1940-2022)

김차섭 동문의 판화와 드로잉 작품 16점이 지난 6월 30일 춘천시에 기증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동문의 배우자인 김명희, 김차섭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택주·정영목 이사와 작품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작품 기증은 향후 조성될 춘천시립미술관을 향한 상징적 첫 걸음으로도 의미를 더한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뉴욕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실험 판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기하학적 묘사와

개념적 표현을 바탕으로 회화, 판화, 드로잉 등 다양한 형식의 실험 예술을 선보였으며 '자연'과의 관계와 인간 문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판화 외에도 회화, 드로잉, '커피컵' 연작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남기며 지역 문화와 국내외 미술계에 꾸준히 기여했다.

도서 '창덕궁과 창경궁' 출판 이향우(72조소)

이향우 동문이 지난 6월 25일 출판사 인문산책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우리궁궐지킴이와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동문이 어린이들을 위해 쓴 궁궐 탐방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과 함께 동궐로 불리는 창경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405년에 지어진 창덕궁의 생김새부터 쓰임새를 포함하여 정조, 사도세자, 혜경궁 홍씨 등 왕실의 이야기도 담겼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다섯 번의 개인전

과 수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3년간 교직에 재직했으며, 2000년부터 시민 NGO 단체 사단법인 '한국의재발견' 소속 우리궁궐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시리즈, '궁궐로 떠나는 문양여행', '종묘로 떠나는 힐링여행', '수채화로 그리는 궁궐 풍경 컬러링북', '한양도성과 경복궁' 등이 있다.

황순원문학상 수상 주수자(72조소)

주수자 동문이 소설 '소설 해레본을 찾아서'로 제14회 황순원문학상 작가상을 수상했다. 황순원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1일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며 주수자 작가의 작품이 "문학의 본질과 민족 언어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되묻는 서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책은 실존 국문학자 김태준이 해레본의 실체를 쫓는 여정을 바탕으로, '글자'와 '말'의 역사, 문자에 담긴 민족성과 보편성을 다층적으로 구성했다. 이중 나선구조로 엮힌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소설은 한글의 창제부터 수난, 보존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언어의 생애사를 문학적으로 펼쳐낸다. 모교 졸업후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생활하던 주동문은 2001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버펄로 폭설', 시집 '나비의 등에 업혀'를 비롯해 희곡 '빛소리 몽환도', '복제인간 1001' 등을 연극무대에 올렸으며, '빛소리 몽환도'는 영국과 몽골에서 번역 출간됐다.

'설렘 아쉬람 2' 출간 전기순(82응미)

전기순 동문이 지난 6월 2일 시-아트집 '설렘 아쉬람2'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설렘 아쉬람', '끌림 아쉬람'에 이은 세 번째 책으로, 1권에 이어 더욱 깊은 수행의 언어로 독자에게 다가간다. 특히 독특한 상징어인 '빛숨'의 세계관을 확장했고 수행자의 내면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풀어내, 자연과의 교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생의 흔적에 대한 시적 탐구가 더욱 짙게 스며있다. 수록된 시 '싸리구슬'에는 삽화도 실려 독자들이 시각과 언어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몰입

하게 한다. 마지막 구절 "그 사이에 은빛 사랑을 새겨두네"는 전동문 특유의 서정성과 영성적 사유가 집약된 대목이다. 설렘 아쉬람 연작은 전동문의 명상 수행과 깊은 내면 성찰을 통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빛숨', '몸채', '설렘 호랑이' 등의 개념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움과 환희를 시적으로 그려낸다. 전동문은 모교 졸업후 국민대 시각디자인 석사, 홍익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 멀티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작 '서퍼' 해외영화제 상영 에릭오(오세영/02서양)

에릭오 동문의 신작 '서퍼(Supper)'가 다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했다. 제주 전시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서퍼는 지난 6월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자그레브 애니마페스타'와 7월 독일 베를린 '픽토플라스마'에서 초청 상영되었고,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컴퓨터그래픽 컨퍼런스 '시그라프'에서 상영됐다. 오는 9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아트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도 상영되며 영

예상을 수상했다. 오동문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도리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등 작품에 참여했고, 개인 작품들로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애니상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서퍼는 2020년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시상식 본상 후보에 오른 '오페라'와 세계관을 함께하는 작품으로 현재 제주 '하우스오브레퓨즈'에서 상영 중이다.

BB&M갤러리 전속계약 이진준(01조소)

이진준 동문이 BB&M갤러리와 전속계약을 맺고 오는 8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동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퍼포먼스와 조각, 영상,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설치작업을 해왔다. 예술, 기술, 자연과 인간 인식의 교차점에 대한 다학제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지식을 바탕으로 AI와 뉴미디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예술의 경험적 차원을 확장하는 '경계공간경험'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을 지속해왔다. 서울

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미술로 전공을 전환, 모교 조소과에서 학석사 학위,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석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 러스킨미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의 헤르츠랩 초청작가와 미국 버몬트스튜디오센터 펠로우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예술 연구 활동도 활발하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왕립예술학회 펠로우이자 영국 왕립조각가협회 정회원이다.

煙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이강소(61회화)

이강소 동문의 개인전 '煙霞(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타데우스 로파크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이동문의 주요 작품들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형식적 진화 과정을 조명했다. 전시 제목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안동 도산서원에 머무르며 자연 속에서의 성찰과 수양을 노래한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2곡에서 비롯되었다. 이동문은 퇴계의 자연관에 깊이 공명하며, 자신의 예술 또한 자아를 표출하거나 고정된 실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



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과 조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파리 비엔날레'(1975), '시드니 비엔날레'(1976)를 포함한 국내외 기획전에 수차례 참가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뉴욕 P.S.1미술관, 국제교류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003년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지오타가 만난 거장 : 형진식展 형진식(69회화)

형진식 동문이 갤러리 지오타가 주최하는 '지오타가 만난 거장'에 참여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2회에 걸쳐 전시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990년대에서 2025년 현재에 이르는 형동문의 그림과 드로잉들을 선보였다. 특히 전시는 형동문의 근간이 되는 지속적이고 순수한 그리는 행위를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인간의 창조 행위와 유희를 연결 지은 개념인 '호모 루덴스'로 상징하여 기획되었다. 1부와 2부의 제목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더하여 '오래된(old, aged)-베키오



(Vecchio)와 새로운(new)-누오보(nuovo)'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를 베키우스(Vecchius)와 누오비우스(Nuovius)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만들어 낸 용어다. 한편 형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서울국제현대미술제, 한국현대미술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두손갤러리, 진화랑, 대구 가인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을 역임했다.

공(空) - 존 류경채(교원)·류훈(73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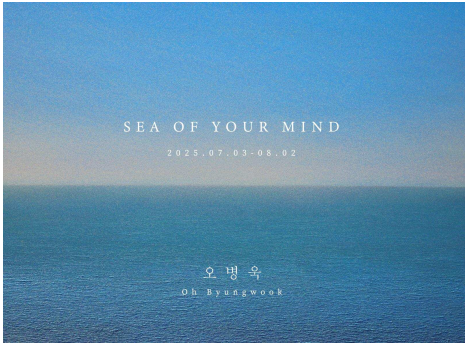
류경채(1920-1995) 전 모교 교수와 류훈(1954-2014) 동문의 2인전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재에서 열렸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이지만, 작업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구축한 조형 언어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각과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류경채 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 미술의 태동기에 등장하여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를 탐구해왔다. 초기의 작품은 서정적 풍경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이후로 이어지는 비구상적 회화는 더 이상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감각하는 인간의 내면으로



이동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노톤의 색면 구성으로 구조미를 구축하며, 한국적 자연주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류훈 동문은 보다 실험적이고 해체적인 조형 언어로 존재의 복합성과 심연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전적 조각의 핵심인 인체를 해체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가 익숙하게 보았던 아버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구조'와 '구성'을 입체적으로 변주하였다.

Sea of Your Mind 오병욱(78회화)

오병욱 동문의 개인전 'Sea of Your Mind'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에서 출발한 그의 시각적·감각적 탐구를 통해 관람객의 내면에 자리한 '마음속의 바다'를 조명했다. 가로로 긴 캔버스를 비롯해 원형, 파편 형태, 아치형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포함되었고, 지하 전시장 기둥 사이로 펼쳐지는 아치형 회화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듯이 구성되었다. 그의 작업은 구상과 추상의 경



계를 넘나들며 감동과 숭고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Paris VIII 조형미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1997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감독, 2006-2007 서울 예술의전당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한 원광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인도 현대미술교류전 신하순(83동양) 외

전성규, 허진, 신하순, 박현주, 서길현, 김호준, 류지선 동문이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주한인도문화원 갤러리 초대로 김선두 등 한국대표작가 및 인도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열었다. 인도와 한국은 모두 존재의 내면적 차원을 중심에 두는 오랜 사상 전통을 계승해 왔다. 정신적인 깊이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반면, 미술적 표현 방식은 특정한 역사적 서사에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발전해 왔다. 언어와 종교, 그리고 수많은 지역이 뒤섞여 풍부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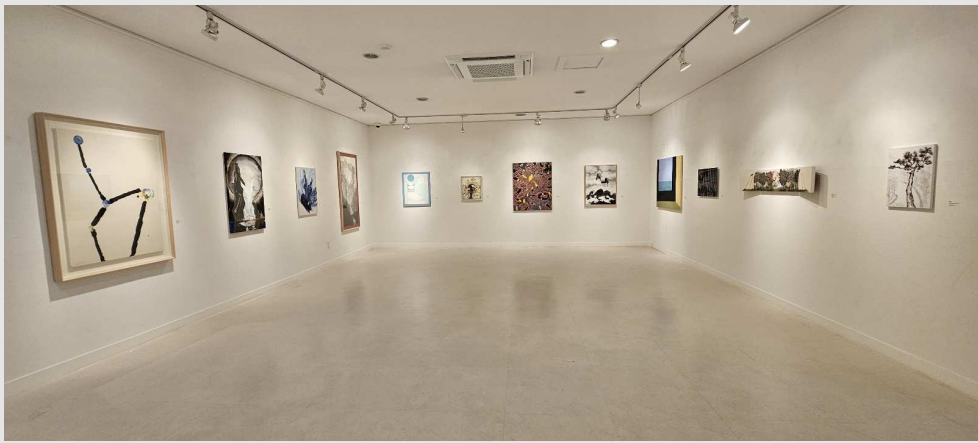
적 풍토를 지닌 인도는 장식과 신화적 서사, 그리고 색채의 상징적 사용으로 특징지어지고, 한국은 여백과 충만함, 그리고 정적과 감정 사이의 절제된 긴장감을 중시해 왔다. 한국의 정서인 한(恨)은 인도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형태의 인도적 파토스(indian pathos)나 박티(bhakti, 拜)에서 그 반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유현미(83조소)

유현미 동문의 개인전 '하이브리드 리얼리티'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유동문이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선보여 온 다양한 매체와 장르, 주제를 아우른다. 2007년 처음 발표한 '스틸 라이프'를 비롯하여 '수의 육체', '코스모스', 길몽을 주제로 선보인 '굿 럭'과 십장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십장생'이 그 예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작들의 기반이 되는 설치 작업과 그 제작 과정을 담은 단편영화 '그림이 된



남자'와 유동문이 직접 집필한 단편소설을 함께 선보인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유동문은 뉴욕대학교 창작미술전공 대학원을 졸업했다. 크리스티로스화랑, 스빠지오 상 까바로포, 갤러리 인 서울, 몽인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판타지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59회 한국화회 정기전

한국화회(회장 송근영·86동양)의 제59회 정기전 <어느 화가가 어느 시인에게 쓴 편지>가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한영옥 정정자 조은경 김춘옥 손희옥 박소영 김희영 이민주 박소현 안영나 허진 이인에 김성희 신하순 강재희 류인선 박민희 김선영 송근영 이주원 이광수 신영호 권기범 윤기언 서기환 박소영 송윤주 엄기원 조인호 홍성용 민동기 이호욱 정성윤 박소연 임현경 강호성 이윤진 김초운 정해나 조해리 김지훈 김종규 김지수 김현정 손우아 최가영 이규석 김하운 소미정 김민경 이인승 청이인 정서원 류은선

조용한 우주, 정원 강재희(84동양)

강재희 동문의 개인전 '조용한 우주, 정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라운지 테토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강동문이 20여 년간을 꾸준히 작업해 온 '아버지의 정원' 연작을 중심으로 정원의 풍경과 기억들을 평면성과 조형성으로 교차시키는 작품들로 선보여졌다. 그는 실재하는 정원을 '기억의 풍경'으로 재구성하여 정원에 등장하는 소재를 작가에 의해 선택되고 조율되어진 하나의 조형 세계로 승화시켰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강동문은 단국대학교에서 '상외지상을 통한 공백 표현연구' 논문으로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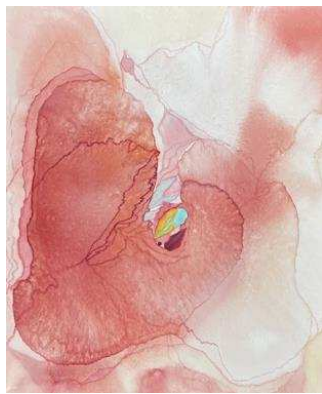
이호경 정수연 안서진 등 57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한국화회의 전신인 목림회 회원이었던 서세옥(46회화/1929-2020) 동문이 주창하여 송영방, 신영상, 임송희, 정치환, 정탁영, 장상의, 정정자, 홍정희 등이 1회전부터 참석하여 한국화회의 기초를 단단히 확립해 주었다. 이번 최석원 교수의 서문에서 보면 "그동안 침체됐던 동양화단의 그룹활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변동하는 세계 조류에 호흡을 같이 하고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라는 기사가 (공간) 1967년6월호에 실렸다고 했듯이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등장한 한국화회는 당시 동양화단의 아방가르드 그룹이었다. 또한 최석원 교수 서문 중 "소멸했다고 무의미한 과거가 아니듯, 지속된다고 유의미한 현재는 아니다. 육십 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화회의 전시이력은 전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현대를, 성취하고자 했던 동양화단의 복잡다단한 사유와, 실천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한다. 차동하(85동양/1966-2021) 전 한국화회 회장이 모교 교수였던 월전 장우성 화백이 설립한 월전문화재단소속 한벽원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놓은 덕분에 무료로 할 수 있었던 이번 전시는 선후배가 한국화의 전통 수묵, 채색화를 비롯해 옷칠, 아크릴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재료를 이용한 창의적 작품을 선보여 평론가 등 미술관계자 및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화회의 큰 발전이 기대되도록 했다.



사 학위를 받았다. 전통 한지인 장지에 채색기법을 기반으로 오일스틱이나 목탄, 콘테 등의 재료들을 혼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표현 기법을 탐구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공의 공존, 일상과 기억의 변형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며 최근에는 정원의 리듬과 풍경의 층위에 집중하고 있다. 199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50여 회의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Nature-Creation : 자연-생성 김선영(86동양)

김선영 동문의 개인전 'Nature-Creation : 자연-생성'이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장은선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채색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업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회화와 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그는 여백과 선의 절제된 활용을 통해 동양화의 정서를 드러내면서도, 구조적인 면에서는 서구적인 조형 원리를 도입하여 시각적 긴장과



조화를 동시에 부여했다. 특히 전통 회화의 감성과 사진, 영상의 시각언어를 융합한 그의 작업은 현대 채색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미학적 지평을 열고 있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동문은 가나아트센터, 한벽원미술관 등에서 3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과학기술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Blue Momentum-흔들린 시간 송근영(86동양)

송근영 동문의 개인전 'Blue Momentum-흔들린 시간'이 지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회아트갤러리에서 열려 사이아노타입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 15점이 선보여졌다. 송동문은 오랫동안 그려온 대나무 숲에 '새'를 결합해 자연과 사유의 흐름, 자유로움과 감정의 진동을 시각화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려온 대나무 숲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그러다 그 속을 날아가는 새를 떠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



동문은 18회의 개인전과 Exposition, Bridge Art Fair, Europ 'ART, The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등 다수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또한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대한민국선정작가전, International Arts Promotion Association Exhibition, G20 정상회의기념 월드아티스트 페스티벌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가했으며, 수원대 객원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푸른숲과 소년-생의 흐름 위에 피어난 빛 김상경(87서양)

김상경 동문의 개인전 '푸른숲과 소년'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과천 갤러리카페 봄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그동안 삶과 시간, 사랑과 이별, 회복과 희망이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그려왔다. 이번 전시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치유와 회복의 서사를 그려낸 작품들로 꾸러졌다. 김동문의 작품은 '시간과 사랑에 대한 찬가'라는 주제를 되풀이하여 말한다. 싱그럽고 몽환적인 작품들은 인간과 동물, 존재와 상실의 경계를



허물어 가고, 반려동물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모교 서양화과 졸업 후 동대학원 판화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동문은 예원학교, 안동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수원대, 청주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또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천안지원,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경북출신 중견작가 초대전 최정윤(87서양)

최정윤 동문이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6일까지 경주술거미술관 주최 경북출신 중견작가 초대전에 참여했다. 최동문은 한지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한국적인 감성을 극대화하며, 섬세한 촉감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동양의 정신을 담아내는 작업을 한다. 또한 현대인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에서도 기하학적 형태와 평면적인 표현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묘사하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최동문은 서경갤러리(1999)와 금산



갤러리(2002)에서 도예전을 열며 도예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회화, 도예, 조각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십여 년째 인간사 '권력이나 욕망'의 상징인 검을 자신의 실로 '봉인'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그래미어워드 수상 가수 김

Entoptima: 별의 기억 남궁환(94서양)

남궁환 동문의 개인전 'Entoptima: 별의 기억'이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서울 삼청동 아트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동문이 2020년부터 본격화한 세라믹 신작 '우주뿔'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여기에 먹 작업, 신작 설치, 그리고 몬트리올 국제예술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영화 'Mémoire des Étoiles(별의 기억)'까지 총체적으로 선보인다. 그에게 '그림'이란, 내면에 각인된 빛의 기억을 바깥으로 전사하는 행위다. 그 빛은 시각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재의 흔적이고, 언어 이전의 기억이며, 시간과 생명의 첫 진동



에 가깝다. 이러한 감각은 먹 작업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남동문은 프랑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석사를 졸업했다. 아트파크, 금호미술관, 인사아트센트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환기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문화재단, 우덕문화재단, 남송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미노오미술관, 선힐 G.C, 페라가모(한국), 월못 & 아소시에(프랑스)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석양에 내려앉은 눈 손동현(98동양)

손동현 동문의 개인전 '석양에 내려앉은 눈'이 지난 5월 9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이상범가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으로 기획한 전시로 “전통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대주제 아래, 전통 한국화 기법으로 대중문화 아이콘과 현실 풍경을 풀어내며 독창적 세계를 구축한 손동현 작가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청전의 예술 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계승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청전의 설경 산



수화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한림모설'(2024-25)을 비롯해, 총 20여 점의 회화 작품이 선보인다. 손동문은 “청전의 완만한 산세와 필법에 감응했지만, 그 형식은 내 작업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며 “〈한림모설〉은 설경의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대관산수로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손동문은 2006년 첫 개인전에서 '슈퍼맨'과 '다스 베이더'같은 대중문화 캐릭터를 한국화로 그리며 화제를 모았다.

흐름의 어긋남, 무위의 흔적 박진하(00동양)

박진하 동문의 개인전 <흐름의 어긋남, 무위의 흔적>이 지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열렸다. 반복과 차이, 리듬과 시간, 그리고 무위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박동문의 작업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반복은 조금씩 어긋나 있으며, 이 미세한 어긋남 속에서 리듬의 변주와 시각적 시간성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노장사상의 미학, 특히 무위자연(無爲自然)과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개념을 회화에 끌어들인다. 정지된 평면이지만, 그의 작업에서 선묘의 흐름과 유동적인 반복 형상들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리듬이 된다. 고정된 구상이나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움직이고 사라지는 현상성 자체를 포착하려는 동양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보는 이는 자신도 모르게 흐름에 휩쓸리고, 어느 순간 멈추어 있으며, '무엇을 본다'기보다 '무엇을 느낀다'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된다. 박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와 국민대 대학원 회화전공 박사과정 졸업후 경북여고, 예원학교, 국민대, 충남대, 인천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미협, 강남미협, 한국화회,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회원이다.

MIMESIS SE 21: 마음의 영원한 빛 이혜인(00서양)

이혜인 동문의 개인전 'MIMESIS SE 21: 마음의 영원한 빛'이 지난 7월 9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파주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에서 열려 40여 점의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간과 감각의 층위를 사유해 온 작가의 회화적 여정을 조망한다. 이동문은 개인의 기억과 현장에서의 감각을 바탕으로 주변 풍경을 그린다.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고양시 능곡 일대가 재개발되며 사라져가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화폭 위에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직접 대상을 마주하는 야외 사생을 통해 현장성과 신체성을 강조했고, 최근에



는 다시 기억의 심층으로 돌아가 내면화된 과거를 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이미 지나온 기억과 감각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마주한다. 사소하고 덧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작업은 대상에 내재한 시간과 정서의 복잡성을 불러 일으키며, 회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실험한다. 아트뮤지엄 관계자는 “작가가 오랫동안 응시해 온 풍경의 궤적을 따라 시공간을 잇는 동시에 초월한 회화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녹화중 Rusting 김지훈(05동양)

김지훈 동문의 개인전 <녹화중 Rusting>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3년만에 공개되는 신작 연작 'Dancing Line-Sun and Moon'과 조형 중심으로, 회화의 시각적 탐구를 넘어 인간관계와 시간, 감정의 결을 함께 사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과 도형을 활용하여 추상적으로 작품을 그려내는 김동문은 회화를 기반으로,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전시 제목 <녹화중 Rusting>은 '녹슬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 '녹슬다'는 금속



이 산화되어 겉모습이 변하는 물리적인 의미와, 오랜시간 사용되지 않아 낡거나 무너지는 비유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번 작업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품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계와 감정이 서서히 변화하고 퇴색하는 과정을 산화된 화면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김동문은 그동안 선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탐색해 왔다. 이번에는 선을 넘어 원, 삼각별 등 구체적인 도상들을 화면에 등장시켜 관계의 서사에 시간성을 더하였다.

Midnight Walk 최민영(07서양)

최민영 동문의 개인전 'Midnight Walk'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남동에 위치한 갤러리바톤에서 열렸다. 최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미지의 장소와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 및 근작을 통해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했다. 작품 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 등장하며, 이는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이 말한 '순수한 내면의 모델'에 접근하는 하나의 시각적 전환, 데페이즈망(dépaysement)으로 작용한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국



슬레이드미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런던에 머무르며 작업하고 있다. 스페이스K 서울(2024), 베이징 하이브 현대미술센터, 올베라 현대미술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쓰시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그는 2018년 웰스아트 컨템포러리어워드에서 차세대 미술상을 수상했고 2017년 슬레이드 서머스쿨 레지던시와 올베라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시에 선정되었다.

피버아이 권아람(박16디자인)

권아람 동문의 개인전 '피버아이'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며 미디어 설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통해 질문을 해 온 작가다. 전시장 외부 미디어월에는 붉은 전시 포스터가 영상으로 상영되었는데, 단순한 홍보 스크린으로 생각했던 관객은 이내 해킹당한 것처럼 변한, 파편이 난무하는 화면에 당혹감을 느낀다. '해스'(Hacks)라는 작품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경유해 다양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스크린을 통해 드러나



는 가능성에 주목한 작업이다. 대상 수상작이었던 '월스'는 작가가 처음으로 LED 패널을 활용해 완성한 작업이다. 조각난 스크린에 거울을 결합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의 과격이 된 스크린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했다. 한편 모교 디자인과 박사 과정을 졸업한 권동문은 세움아트스페이스, 갤러리도스, 원앤제이플러스원, 더그레이트컬렉션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라인란트팔츠,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Cracks, Ripples, and What Not 설고은(석21줄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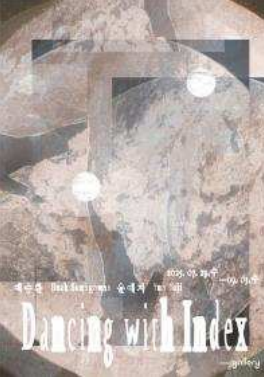
설고은 동문의 개인전 'Cracks, Ripples, and What Not'이 지난 7월 5일부터 24일까지 Hall1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총 53점의 대형 드로잉과 17점의 신작 회화로 구성되며, 전통적인 회화 감상 방식에서 벗어난 배치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베니스, 서울,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벽면의 균열, 도로의 틈, 부식된 페인트, 자연에 의한 침식 등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들을 사진으로 기록한 설동문은 "이번 전시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지나쳐온 시간을 어떻게 회고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했다. 한편 설동문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과 시각예술을 전공했으며 2021년 서울대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스펙트럼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작가로 입주해있다.

Dancing with Index 윤예지(21줄 서양) 외 1인

윤예지 동문과 백승환 작가의 2인전 'Dancing with Index'가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신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들은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지각과 긴밀히 연동하는 시각 데이터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사진 이미지의 지표성이 흐릿해진 시각 환경을 본 전시의 배경으로 삼는데, 이를 통해 전시장 밖의 무한한 이미지들과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본다'는 신적 행위는 현실 세계에 대한 다층적



인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드러낸다. 특히 윤동문은 사진 이미지가 다양한 프린트 방식의 변수를 끌어안으며 겪는 물질적인 상태 변화에 주목하는데, 그 결과물로서의 인쇄물은 어느 대상도 지시하지 않는 이질적인 시점을 갖게 되며, 특정한 형식으로 수렴하지 않는 것에서 사진 이미지가 유효해진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판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뒤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선잠 김영현(16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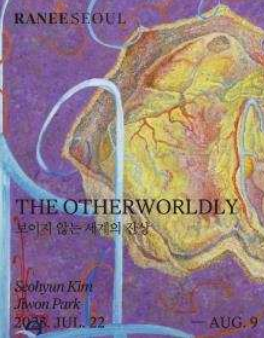
김영현 동문의 개인전 '선잠'이 지난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김리아 갤러리에서 열린다. '선잠'은 깊이 들지 못한 채 얇게 머무르는 잠, 혹은 잠결과 현실 사이에서 피어나는 환영과 감각의 상태를 뜻한다. 이번 전시는 현실에 발 딛지 않은 세계를 감각적으로 구축해온 김동문의 태도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제목으로, 현실과 비현실, 평면과 물질, 아름다움과 위태로움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회화적 실험들을 소개했다. 김동문은 그동안 낯선 상상을 정교한 감각으로 길어 올리며,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집요하게



탐색해왔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본 적 있는 것처럼 성실히 그려내는 그의 회화는, 허구적 서사를 품은 채 묘한 진실감을 획득한다. 또한 그는 회화의 물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되, 완전한 서사를 제공하지 않는 장면들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간극을 드러낸다. 화면 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균열의 개입은 '허구'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현실을 성립시키는 구조임을 되묻게 만든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잔상 박지원(19서양) 외 1인

박지원 동문과 김서현 작가의 2인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잔상'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라니서울에서 열렸다. 이들은 꿈과 오래된 기억, 종교적 장면, 고대 벽화, 그리고 신체 깊숙한 곳에서 반응하고 감응하는 내면의 정서를 각자 독창적인 회화 언어로 풀어낸다. 특히 박동문은 모자이크화의 형식에 착안해 단위 형상들을 조밀하게 집적함으로써 내부를 선명히 열어젖힌다. 이들은 기억과 상상을 매개로 입체적인 시공간을 결속시키며, 신비한 경계 너머의 세계, 그 잔상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들 두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먼



저 마주하는 것은 색감과 질감의 뚜렷한 상이함이다. 김작가의 작업은 외피가 덮인 듯 보이고, 박동문의 작업은 내부를 선명하게 내보인 듯하다. 회화의 인상을 이처럼 다르지만, 이들의 작업은 평면이라는 매체 안에서 기억과 상상을 매개로 입체적인 시공간을 결속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각자가 목격했거나, 그와 함께 엉뚱하게 상상하게 된 과거는 은유, 모방, 변용을 거쳐 현재의 이형적인 몸과 물질로 다시 형태를 갖춘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8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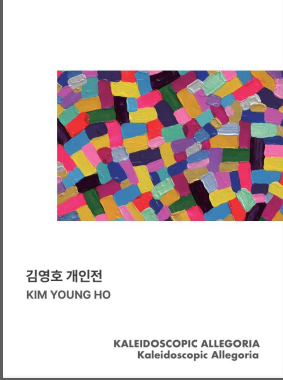


안티-셀프:나에 반하여

김나영(84조소) 단체전

8.22-10.26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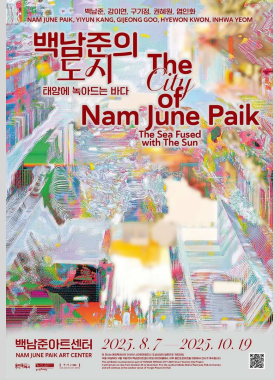


Kleidoscopic allegoria

김영호(90조소) 개인전

8.13-8.26

갤러리 41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강이연(02서양) 외

8.7-10.19

백남준아트센터



The BATHER

박정연(91서양) 단체전

8.7-8.23

조원생활·아이부키스윙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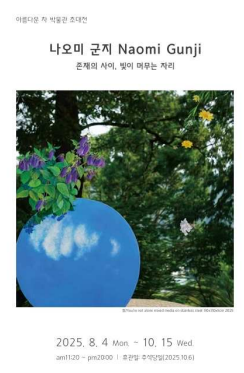


한여름 밤의 꿈

권여현(81회화) 외 4인

8.5-8.30

갤러리 526



존재의 사이 빛이 머무는 자리

나오미 군지(86동양)

8.4-10.15

아름다운 차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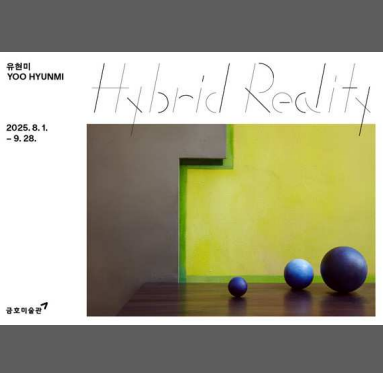


What Rests Between

강민정(04동양)

8.2-9.6

다시그림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유현미(83조소)

8.1-9.28

금호미술관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오다교(석21줄 동양) 외

7.24-10.26

경기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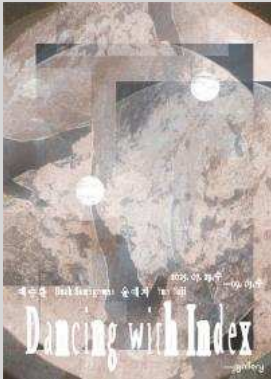


Entoptima : 별의 기억

남궁환(94서양)

7.23-9.14

아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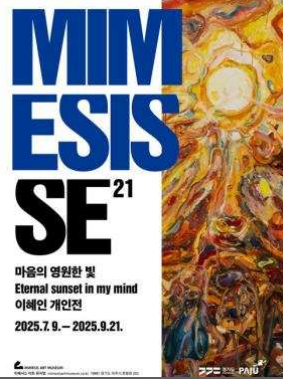


Dancing with Index

윤예지(21줄서양) 외 1인

7.23-9.3

신한갤러리



마음의 영원한 빛

이혜인(00서양)

7.9-9.21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도시예찬

정직성(95서양) 외

7.5-9.28

더 갤러리 호수



깨어 있는 자들의 꿈

김기홍(15동양) 외

7.5-9.27

북한문화공간 트라이보울



겹겹의 서사

김현철(79동양)

7.4-9.14

소암기념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김종영(교원)

6.20-11.2

김종영미술관



두 시선

전이린(86산미)·박상철(86산미)

6.15-12.15

갤러리 무위도식



석양에 내려앉은 눈

손동현(98동양)

5.9-11.27

이상범가옥



Walk the House

서도호(81회화)

5.1-10.26

테이트모던



내 속에 꿈틀거리는 한 가닥 진심

하인두(50회화) 외 1인

4.22-8.24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